

조선해와 일본해

1900년대 초반까지 일본은 한반도와 일본 사이에 있는 바다를 조선해(朝鮮海)라고 표기한 지도와 서적을 발행했다. 하지만 그들은 조선해를 일본해(日本海)라는 이름으로 바꿔 부르기 시작하며 영토 침탈의 야욕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Carte Des Indes de la Chine & Iles de Sumatra, Java & C(1732년 추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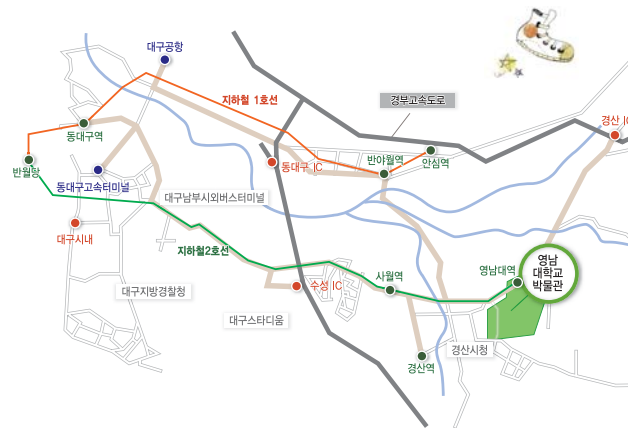
동남아시아가 그려진 18세기 유럽의 지도로 동해가 조선해(Mer de Corée)로 표기되어 있다. 당시 유럽인들이 조선의 바다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The Russian Empire in Europe & Asia(1790년)

러시아를 중심으로 하여 그와 인접하고 있는 지역을 나타낸 지도이다. 이 지도는 동해를 Corea Gulf로 표시하여 조선의 바다로 인식하고 있다.



약도



교통편

- 철도** 경산역 하차
버 스 : 309, 509, 609, 719, 소요시간 15~20분
동대구역 하차
버 스 : 동대고속터미널 앞 909, 소요시간 50분
지하철 : 동대구역(1호선) → 반월당역(2호선 환승) → 영남대역
- 지하철** 2호선 영남대역 4번 출구에서 도보 5분
- 고속버스** 동대고속터미널
버 스 : 909, 소요시간 50분
지하철 : 동대구역(1호선) → 반월당역(2호선 환승) → 영남대역



712-749 경상북도 경산시 대학로 280
tel. 053) 810 - 1707 fax. 053) 810 - 4716



799-801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악수터길 90-17(도동리 581-1)
tel. 054) 790-6432~3 fax. 054) 790-6599
http://www.dokdomuseum.go.kr

독도박물관 순회전시회

‘독도, 일상의 무대가 되다’



전시기간 2013년 9월 12일 ~ 2013년 10월 11일

전시장소 영남대학교 박물관 2층 특별전시실



주최: 울릉군 / 후원: 경상북도

주관: 독도박물관, 영남대학교박물관

독도박물관 순회전시회

‘독도, 일상의 무대가 되다’



전 시 목 적

독도박물관은 (故)이종학 초대 관장이 국내외에서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1997년 8월 8일 국내 유일의 영토 박물관으로 개관하였습니다. 개관 이후 독도박물관은 독도 및 조선해(朝鮮海)와 관련한 자료를 발굴·수집·연구를 이어 나갔으며, 이를 바탕으로 전시·교육 등의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일본의 독도영유권 및 일본해(日本海)에 관한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자료와 이론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독도박물관은 독도의 중요성을 알림과 동시에 독도 박물관에서 전시되고 있는 유물을 대중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이번 전시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전시를 통해 독도박물관은 독도가 한국의 영토라는 역사적인 당위성을 널리 알리고, 지역민들과 소통하는 박물관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전 시 개 요

전시제목 : 독도박물관 순회전시회

‘독도, 일상의 무대가 되다’

전시기간 : 2013년 9월 12일 ~ 2013년 10월 11일

전시내용 : 독도박물관 소장 유물 20점 및 독도사진 15점

전시장소 : 영남대학교 박물관 2층 특별전시실

DOKDO MUSEUM

독도영유권의 역사적 사실과 근거로 본 진실01

한국의 고유영토 독도

일본의 고지도와 문헌에는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의 땅이라고 명백히 기록되어있다. 일본은 이러한 자료에도 불구하고 독도가 일본의 고유영토이며, 한국의 영토라는 증거가 없다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

삼국점양지도(1785년)



일본의 지도제작 대가인 하야시(林子平)가 그린 지도로 일본과 이를 둘러싼 세 나라의 색을 달리하여 구분하였다. 지도에는 조선해(동해) 가운데 2개의 섬이 조선과 같은 색으로 그려져 있는데, 큰 섬에는 '죽도(竹嶋)'라고 쓰고 그 왼쪽에 '조선의 것(朝鮮ノ持二)'이라고 기록하였다. 이 두 섬은 울릉도와 독도를 그린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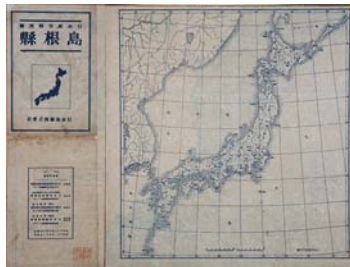
일로철종전국면대지도(1904년)

《일로전쟁실기》 제19편 부록.

울릉도를 '송도(松島)'로, 독도를 '죽도(竹島)'로 명기하고 조선영토로 표시하고 있다. 그리고 부산과 대마도 사이를 조선해협(朝鮮海峽)으로, 대마도와 일기도 사이를 대마해협(對馬海峽)으로 표시하였다.



일본신분현지도-시마네현(1946년)



일제 패망 후 일본의 민간 지도 회사가 발행한 시마네현 지도로 어디에도 독도가 표기되어 있지 않다. 독도를 일본의 영토로 편입했다는 일본의 주장과는 달리 독도가 일본의 영토로 표기된 지도는 존재하지 않는다.

DOKDO MUSEU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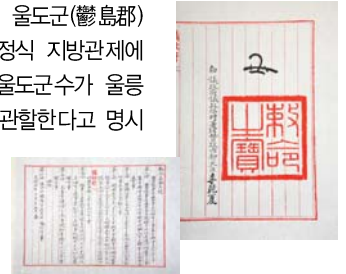
독도영유권의 역사적 사실과 근거로 본 진실02

일본 독도침탈의 허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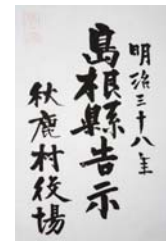
1905년 일본은 무주지 선점론(無主地 先占論)이라는 논리를 앞세워 독도침탈을 감행한다. 하지만 그들의 주장보다 5년 앞선 고종의 칙령 제41호를 통해 이 주장이 거짓되고 허황된 것임을 밝힌다.

칙령 제41호(1900년)

울릉도는 1900년 10월 25일 울도군(鬱島郡)으로 승격되어 대한 제국의 정식 지방관제에 포함되었다. 칙령 제2조에는 울도군수가 울릉전도와 죽도 및 석도(石島)를 관할한다고 명시하였는데, 이 석도는 돌섬의 뜻을 한자로 표기한 것으로 독도를 지칭하는 것이다.



시마네현 고시 제40호(1905년)



일본은 1905년 독도영토 편입에 있어 무주지 선점을 위한 국제법상의 국가의사의 표현으로 1905년 2월 22일의 시마네현 고시 40호를 들고 있다. 그러나 독도는 대한제국의 영토로 무주지 선점의 대상이 아니었으며,

시마네현 고시 40호는 실재 고시가 아니라 소수가 돌려본 회람(回覽)에 불과한 것이었다.

강원도관찰사 이명래 보고서(1906년)

일본의 불법적인 독도 편입에 대한 조사를 한 이명래는 보고서 상에서 “本郡(울도군)소속 독도(獨島)”라고 하며, 일본의 불법적인 독도 편입의 부당성을 지적하였다.

